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MAY / JUNE 2023
통합의료원보 VOL. 77 05/06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3. 05/06

SCH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SCH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SCH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오월의 그늘

_김현승

그늘,
밝음을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그늘,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팝나무—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너에게서...



표지설명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순천향대병원에서는 각종
감사와 사랑의 행사를 펼친 가운데 천안병원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표지로 담았습니다.

SPECIAL 감사와 사랑의 5월에 순천향의 ‘인간사랑’을 전하다	04	ISSUE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한다	26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순천향 본연의 자세 지켜갈 것”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이정재	08	부천병원,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 로봇수술로 고령 환자 양측성 신장암 동시 수술 성공	28 29
LOVE 휴일인데 달려오신 김명신 교수님, 그 마음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	12	‘낭만닥터 김사부3’ 의학자문의로 활약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44주년 기념식수	30 32 33
DOCTER “다시 태어나도 신경외과 의사가 될 것이며 순천향을 선택하겠습니다”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김범태 신경외과 교수	14	KNOWLEDGE 복부 혈관 주위 지방, 대사증후군 위험 연관 있다 뇌전증 환자 사망 위험, 일반인보다 2.25배 높아	34 36
HISTORY 가장 낮은 곳에서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18	암환자에게 큰 도움주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두통·어지럼,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	38 40
VISIT “완벽한 팀워크와 최적화된 수술이 빛나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장기이식센터	20	SCIENCE 챗GPT가 마비환자의 생각도 읽는다	42
WITH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 건립기금 1억원 기부 - 오동혁 동신포리마 대표	22	EQUIPMENT Genexu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44
		NEWS	46

통권 77호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연락처 02-709-9592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애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감사와 사랑의 5월에 순천향의 ‘인간사랑’을 전하다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병원별로 풍성한 행사를 개최했다. 병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환아를 위한 위로 행사를 비롯해 음악회,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의 행사로 감사와 사랑을 나눴다.
각 병원별 행사를 소개한다.

서울병원

서울병원,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의료봉사, 음악회 개최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5월 2일 본관1층 로비에서 캄보디아 호산나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 데 이어 7일에는 의료봉사단이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5월 7일에는 소아청소년과 병동인 모자 7층
에서 23명의 입원 환아들에게 우산을 선물하고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했다. 5월 8일에는
70세 이상 입원환자 185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얻
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호산나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호산나 합창단과 앙상
블이며, 김현민 지휘자를 필두로 19명의 합창단원, 바이올린 외 악기 6명, 피아노 반주
자 1명이 참여했다. 호산나합창단은 Dona nobis pacem, Flying free, 은혜, 어머니 마
음 네 곡을 선사하며, 대통령실 초빙공연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발휘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의료봉사활동에는 이정재 병원장(산부인과)을 비롯해 박병원 의료봉사단장(심장내과),
변형권 이비인후과 교수, 유병욱 국제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 김경하 중앙혈액내과 교
수, 이동현 안과교수 등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사회사업팀, 중앙의료원
국제사업팀,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이주민과 노동자 등 70명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했다. 현장에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문진하



고, 혈압·혈당·소변·혈액·심전도·심장초음파·안압·망막·백내장·시력 검사 등
전문적인 검진을 통해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했
다. 이날 의료봉사 현장에는 수원시청 조남철 다문화정책과장과 권선구청 이용주 행정
관리팀장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짜룽 보툼람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직접 참석해 의
료진과 병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로했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캄보디아와 우리 병원은 한감봉사회를 비롯해 20년 이
상 의료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과 교육 등 협력사업을 함께하면서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
고 있다”며 “타국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진료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의료
봉사를 통해 순천향의 인간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직원을 격려했다.

부천병원

부천병원,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개최

부천병원은 가정의 달 5월 4일, 5월 8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5월 4일에는 입원 중인 환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외래, 91병동, 소아응급실 등에서 간식 꾸러미 300세트를 증정하는
등 어린이날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병동 입원 환아들에게 크레파스를 증정하고, 병





동 라운지에 포토존을 만들어 소아청소년과 신미용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간호 팀이 함께 참여하여 환자들의 병원 생활에 활력을 북돋웠다.

5월 8일에는 70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과 가족의 편지 등을 선물해 병 상 생활에 지친 환자들을 웃음 짓게 했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는 문중호 진료부원장 등 의료진이 직접 카네이션 꽃과 칫솔 세트·물티슈 등을 전달하였으며, 아들과 딸의 마 음을 담아 손편지를 작성하였다. 선물을 받은 환자 중 한 명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적정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행사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 병원 생활이 더 친 숙해진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매년 어린 이날과 어버이날 이벤트를 열고 환자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하는 등 '치료 잘하는 병 원'을 넘어 '마음까지 살피는 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2020년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천안병원, 어린이날·어버이날 맞이 이벤트 ‘풍성’

천안병원은 매년 가정의달 5월이면 병원 곳곳에서 이벤트가 열린다. 어린이날(5.5)과 어 버이날(5.8)이 대표적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기념일에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와 어 르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병원은 올해도 병원 외래와 병동에서 다양 한 이벤트를 열었다.

어린이날 맞이 선물증정·기념촬영 이벤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소아청소년과 병동과 외래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 득했다. 천안병원 의료진들은 어린이날(5.5)을 맞아 환아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 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 어린이날 이벤트는 박상흠 병원장, 김애자 간호부장을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20여명이 참가했다. 의료진은 병동을 형형색색 풍선으로 장식해 특별한 분위기를 돋웠으며, 병실과 외래를 직접 돌며 유아용 칫솔세트, 비타민 간식세트 등 작은 선물도 나눠주며 환아들을 위로했다. 병동과 외래 의 한 칸에는 뽀로로 캐릭터가 새겨진 포토존도 설치돼 환아와 가족, 의료진이 한데 어 울려 즉석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폐렴으로 입원한 환아의 보호자는 “입원해서는 내내 힘들어해 마음이 아팠는데,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 아이 모습을 보니 많이 위로가 된다”면서, 이벤트를 열어 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천안병원 간호사들은 어버이날(5.8)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65세 이 상 어르신 환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위해서다. 오전 8시



부터 간호사들은 병동과 인공신장실 등에서 500여명의 어르신 환자들 가슴에 카네이 션을 달아드리며 쾌유를 기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이 모 할머니 (71)는 “자식같은 간호사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니 기분이 좋아 아픈 몸이 다 낫는 것 같다”면서,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애자 간호부장은 “매일이 어버이날 같 이, 늘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언제나 순천향이 함께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개최

구미병원은 5월 4일, 제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환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 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본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일권 병원장의 축하메 시지 전달 ▲12색 색연필세트, 멸균 두유, 비타민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 증정 ▲기념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순천향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일권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 소아청소년과 과장, 성명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미선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환아들 과 친숙한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여 외래와 소아 병동,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에 내원 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선물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병원에 대한 친근함과 소중한 추 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진료실 안에서 하지 못한 이야 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정일권 병원장은 “101번째 어린이날 을 축하하고 환아의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순천향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 터 운영, 광역 새싹지킴이 병원 지정, 햇살아이지원센터 운영,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보 건의료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과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24시간 소아환자 에게 신속한 진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순천향 본연의 자세 지켜갈 것”

750억원 투입 10년간의 리모델링 마무리...제2 도약 위한 발판

병원장 취임하시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신 없이 보냈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보람 있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감사하단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취임할 때 저는 우리 병원이 혁신보다는 안정과 작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Tri-Shift’인데요. 뛰어넘거나 혁신이 아닌 전환에 의미를 두고 진료, 연구, 문화에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의료 질 평가를 상시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67%의 병상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보율입니다. 연구 활성화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간호환경과 인사제도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특히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환자와 교직원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 좋은 순천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올해 목표와 주요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 병원은 지난해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질 평가에서 359개 기관 중에 15위, 1-나 등급을 받았고, 각종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는 24개 기관 중 3위, 전국 123개 기관 중에서 12위를 해서 응급실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올해 2월에 받은 의료기관인증조사에서는 512개 항목 중에서 511개 항목을 상을 받아서 정말 괜찮은 병원임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중꺾마...즉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다시 뛰자는 의미에서 ‘revive S, revive 순천향, revive 서울병원’으로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revive S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점프와 효율성 개선, 자신감 회복을 위해 다시 뛰는 re-run의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이 뛰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 매출 270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병원은 2012년 9월 신관 건물을 오픈한 것을 계기로 외래와 병동, 외관 전체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약 7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병원 안팎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깨끗하고 쾌적하게 변화함은 물론, 본관, 별관, 모자보건센터, 신관 등 병원 전체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중앙주사실과 채혈실을 병원 가운데 배치하는 등 환자 동선을 고려한 기능적 재배치로 쉽고 편리하게 병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본관 2층에는 모자병동과 외래환자를 위한 일반촬영실을 마련해서 검사 동선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며 스프링클러 외에도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여러 시설 보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연구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연구부의 현재 활동은 어떤가요?

2022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우리병원의 연구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내년 개원 50주년을 맞이한다.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순천향 본연의 정신으로 그 어떤 의료기관 보다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메이저 병원이 아님에도 지난해 의료질평가에서 전국 359개 기관 중 당당히 15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병원임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 취임 2년 차가 된 이정재 서울병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보다는 병원의 안정과 가치추구라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다. 또한, 여전히 최일선에서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환자 진료와 수술에 진심이다. 이런 이 병원장의 모습이야말로 50주년을 맞는 ‘순천향’의 정신, 그 자체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한남기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혹시 작은 의료 사고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윤리적인 병원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호하고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첨단재생의료실시
 기관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
 복지부가 지정하는데요. 연구역량강화를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
 겠습니다.
 연구비 수주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 16.2억원에서 지난해는 29.7억
 원으로 증가해 83.59%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SCH
 연구회도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식약처와 산하기관의 의료기기
 1~4등급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
 사자 교육 용역사업도 수행해서 병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ESG경영이 주목받고 있는데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어떤가요?

ESG경영은 지역사회와 병원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받드
 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에너지나 물, 가스 등 사
 용을 자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일회용품 줄이기, 잔반
 줄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진료협력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
 에 봉사하고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
 리 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 격리치료시설에 의료진을 제일
 먼저 파견한 병원 중의 하나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재택
 치료를 할 때, 재택 치료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산구, 동작구, 그리
 고 우리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같이 협업을 하는 등 사회적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
 는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 회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혹시 작
 은 의료 사고 또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윤리적인 병원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용산구와 함께 베트남 퀴논시의 백내장 환자 수술을 10년
 째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시설과 설비 등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병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진행되 고 있는지요?

최근에 온라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비스와 환자용 앱 서비스를 통해 편
 리하게 예약, 수납, 검사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
 난해에는 SK텔레콤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Si기반 돌봄콜’ 업무협
 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주)씨어스테크놀
 로지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원내환자 활력 징후 모니터링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병동을 대상으로 환자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보이스 emr(음성 인식 의무기록 장치)’ 시범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를 모든 병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다음 단계에는 간호사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의무기록까지도 음성 인식을 통해 문자로 바꾸는 사업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개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며칠 전 49주년 개원기념일이었으니 내년이면 우리 서울병원이 50주년
 을 맞이합니다. 서울병원 50주년이기도 하지만 ‘순천향’이라는 이름이 탄

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여서 법인과 대학, 의료원과 산하
 병원이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사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
 침을 주셔서 곧 킥오프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잘 기획하고 준비해서
 순천향의 위상도 알리고, 그동안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
 하고 순천향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신데 전문분야와 관심 분야를 소개해 주십시오.

고위험임신, 태아기형, 유전상담 등의 모체태아의학을 비롯해 자궁 및 난
 소 질환의 수술 치료가 전문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자궁근종의 로봇수술



을 활발히 시행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중 가장 많은 수술 건수를 기록하
 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무수혈’ 및 ‘최소수혈’에 대해 관
 심이 많아 이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장
 을 역임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했습니다. 환자 혈액 관리, 즉 적정한
 수혈 또는 최소 수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혈액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관
 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5년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초대회장, 대한수혈대체의학회 회장, 대한자궁
 근종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상임이
 사, 아시아환자혈액관리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교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직원 선생님들이 계셔서 병원장도 있고, 환
 자도 있고, 병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 2200여 교직원 선생님들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가 더 빛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셔서 저
 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가
 장 핵심적인 단어는 ‘인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 병원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인술을 베푸는 고향이라는 의미미어서
 환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런 인간 사랑을 다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립자께서 말씀하신 인간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병원
 은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더 좋은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조현탁 환자 감사편지,

휴일인데 달려오신 김명신 교수님, 그 마음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의달을 맞아 휴일에도 저를 치료해주신 순천향대 구미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명신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힘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셨고, 항상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수님 덕분에 저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노력으로 인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명신 교수님께서는 헌신적으로 저를 치료하시며 항상 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셨습니다. 특히 휴일에 진료를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교수님은 제게 무한한 신뢰와 희망을 주셨고, 이제는 저도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세심하게 저의 상태를 관찰하시고, 제대로 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도 항상 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며,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셨습니다. 자신의 휴식과 시간을 희생하셔서라도 저를 치료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끈기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신 선생님께서는 늘 저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감기몸살 기운과 객혈, 대상포진, 숨찬 증상, 다리부종이 심해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와 사진을 찍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는지 담당 교수님께서 쉬시는 휴일인데도 오셔서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힘든 치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병이 심하고 급한들 외래환자가 응급실 있다고 휴일 쉬시는 날인데도 일찍 와주신 교수님, 그 마음이라면 죽어도 이 병원에서 교수님께 치료받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정상혈압도 아니고, 폐렴에 폐동맥까지 터져 객혈을 하고 점점 붓는 다리...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건강을 되찾아 이렇게 글 쓰는 여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과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예쁜 마음에 여러 가지 병들도 치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이라고 사람들은 더 큰 상급병원을 선호한다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고 많은 의료진이 있더라도 휴일인데 담당 환자를 위해 달려오신 교수님의 그 마음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

짜증 내고 투정 부려도 늘 웃으시며 간호해주신 간호사 선생님들의 고마움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병원이 있다는 것에 늘 병으로 힘든 저에게는 큰 믿음과 위안이 됩니다. 주절주절 긴 이야기에 죄송한 마음 느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약봉지를 손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태어나도 신경외과 의사가 될 것이며 순천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 병원 30년 재직... 뇌혈관질환 치료 역사의 산증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경외과 치료라 하면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일반적이었다. 심장의 경우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됐지만, 뇌동맥류 수술은 개두술을 대체할 만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다. 김범태 교수는 그러나 뇌혈관질환의 비개두술 시대를 일찌감치 예견했고, 국내 신경외과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던 비개두술, 이른바 뇌혈관내치료(인터벤션)를 개척해 국내 뇌혈관질환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비개두술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글_ 이현서 사진_ 한남기

김범태(63) 교수가 부천병원으로 온 때는 2001년이다. 김 교수는 1993년 5월부터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8년간 근무하고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새롭게 오픈하는 부천병원에 합류했다.

김 교수는 당시 뇌혈관내치료 기술을 배워와 새로운 치료법을 반드시 전파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라던가 생소한 치료법에 대한 우려 등으로 김 교수가 배워온 기술을 선보일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3년이 흘렀다. ‘자성이면 감천’이라고 끈질기게 주변을 설득하고 관련 연구도 지속하던 어느 날 돌연 길이 열렸다. 그간의 노력이 경영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순천향대학병원 최초의 뇌혈관내수술팀이 발족됐다.

김 교수에겐 유독 최초라는 수식이 많이 붙는다. 그도 그럴 것이 순천향대 의과대학 2기 입학생으로 순천향대 병원의 역사와 발맞춰 성장한 까닭도 있고, 그 스스로가 워낙 새로운 도전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인턴과정 때 신경외과 변박장 교수(전 순천향대병원장)님께서 저에게 순천향 졸업생 중에도 신경외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해보죠’라고 했거든요. 원래도 심장이나 뇌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험한 길을 걸은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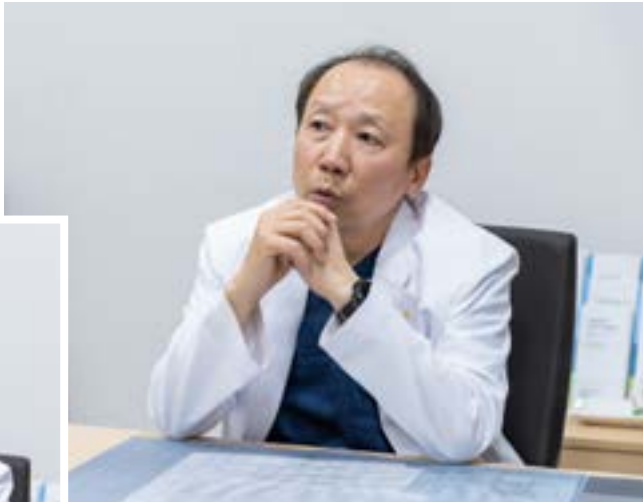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김 교수가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순간이었다. 변박

장 교수는 그날 이후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그에게 뇌혈관 수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이 밖에 고 낙천 이인수 박사와 고 최순관 교수, 신원한 교수 세 분의 은사가 그의 멘토로 명이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덕목을 갖추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순천향대 졸업생 출신으로 신경외과 새 역사 창조

순천향대 졸업생으로서 신경외과의 새 역사를 쓰게 된 그는 특유의 집념과 꾸준함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의 2막을 열었다. 앞서 언급한 최초의 뇌혈관내수술팀 발족을 시작으로 그는 놀라운 성과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2010년 활발한 연구와 새로운 수술기법 개발 등의 공로로 세계적인 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되기도 했던 김 교수는 2016년에는 사타구니가 아닌 목의 내경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집어넣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수술 기구도 직접 제작, 개발했다.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그가 개발한 수술 기구로는 개두술과 비개두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오퍼레이션 테이블’부터, 시술 중 색전 감시 장치, 베드사이트 천두술 기구 등이 있다. 그는 미국보다 앞서 국내에 뇌졸중치료인증의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뇌졸중, 뇌혈관질환 시술을 할 수 있는 수련 및 자격 기준을 최초로 정한 것이다.



후학 양성을 위한 ‘신경해부학’ 강좌도 김 교수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다. 전임의 시절부터 후학들을 위한 ‘신경해부학’ 강좌를 열었던 그는 군 의관 시절 신경해부학강의 책자를 만들었고 모교에 부임한 1993년부터 강의를 해왔다. 지난 30년간 27차례 열었고 그의 신경해부학 강좌는 전국 300여 명에 이르는 신경계 의사들이 참여하는 인기 강좌다.

협업과 환자 중심의 치료 원칙

다학제 진료와 뇌혈관수술 환우회도 그에겐 소중한 결실이다. 신경외과 환자의 경우 신경계 질환 중증도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협진이 중요하다. 부천병원의 경우 협진 및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 김범태 교수의 신경외과팀에서 시작해 다른 진료과로도 확산된 사례다.

“한 번은 뇌종양 수술 중인 동료가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출혈이 어마어마해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료를 도와 새벽까지 수술해서 문제없이 다 떼어냈죠. 그러고 한 달 뒤쯤 제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하는데 그만 정상 혈관이 막힐 위기에 처한 거죠. 후배 동료가 도와줘 해결했구요”

협업의 힘은 위대했다. 그는 신경외과 팀뿐 아니라 다른 과로도 확대해 연

구회를 발족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 치료한 사례로 리뷰하고 토론했다 다음 환자를 어떻게 더 잘 치료할지 모색하는 모임인데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는 환자 중심 치료로 이어졌고, 환우회로까지 연결됐다. 김 교수에게 사실 최고의 스승은 ‘환자’다. “치료하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배우죠” 환자에 대한 그의 특별한 생각은 환우회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뇌혈관 환우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김 교수는 지금까지 15차례 환우 초청행사를 병원에서 가졌다. 행사 자체도 뜻깊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모두 기록하고 저장해놓는 정성을 기울이는 덕에 김 교수와 환자 관계는 특히 각별하다.

대한신경외과학회장 취임 등 자랑스러운 순천향의 얼굴

지난해 제 62대 대한신경외과학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열심히 김 교수는 대한민국 신경외과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하다. 대한신경외과학회학술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며 SCI급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굴, 게재함으로써 국내 학술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고,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최소침습적 혈관내 치료, 내시경적 척추수술, 말초질환 등으로 치료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대한신경외과

학연구재단 자랑스런 신경외과 의사상(2021), 대한신경외과학회 공로상(2020), 대한외혈관내수술학회 회장(2013), 대한신경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장(2013) 등 화려한 이력 외에도 개발도상국 의사들에게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등 해외로까지 그의 영향력은 뻗어있다. 락천의학상을 비롯한 네 차례의 학술상은 그의 학문적 깊이 또한 가늠케 한다.

김 교수의 보은(報恩)

김 교수가 순천향대 병원에서 근무한 지도 올해도 벌써 30년째다. 그에게 순천향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정말 순천향에 감사해요. 내가 순천향에 받은 은혜를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입시 때부터 순천향대와의 인연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본고사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어떻게 그렇게 아는 문제만 출제됐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했어도 전체 수석이란 결과는 그에게 낯설기만 했다. 어린 시절 일찌감치 부모님과 떨어져 형들 밑에서 엄격하게 교육받고 공부해 온 그는 6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마쳤고, 그 덕에 부모님께 등록금 걱정 한 번 끼쳐드린 적 없는 효자였다. 형들 생각만 하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김 교수는 인내와 배려,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시각 등 지금의 그를 있게 한 모든 것이 형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순천향이 있었기에 모든 유산이 빛났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김 교수가 동창회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제10대 순천향의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열악한 동창회를 활성화하려고 병원 근무를 마치고 방방곡곡 개원가 모임을 찾아다니며 선후배들을 만나고 다녔다. 분리돼 있던 순천향대 의과대학 장학회를 동창회 산하로 흡수한 뒤 기부금이 무려 15억여 원에서 20억 원으로 불어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순천향대 의과대학 장학재단이 한 해 운용하는 장학기금은 2억여 원이다. 전국 38개 의과대학 가운데는 가장 앞선 장학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는 항상 모교와 설립자 서석조 박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신경외과를 전공하면서 훌륭한 은사님, 선후배를 만나서 행운이었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 동료를 배려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뇌혈관 청소부’로 환자 목숨 구할 때 가장 큰 보람

그에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때다. 뇌혈관질환의 경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많고, 조금만 잘못해도 환자가 위험에 빠지

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삶과 죽음의 최전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특히 병원 교직원과 그들의 가족의 목숨을 구한 일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 “저는 순천향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 직원을 목숨을 살리고 가족 도와줬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다. 잃어버린 환자를 되찾기 위해, 김 교수가 다시 태어나도 신경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이유는 “잃어버린 환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3년 뒤 정년 퇴임을 앞둔 김 교수는 지난 세월이 마치 한 편의 소설 같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의 귀결은 ‘인간사랑’이라는 깨달음도 얻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하며, 은사들의 가르침은 인간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성실한 의사가 되라는 뜻이었음을 지난 삶을 통해 온전히 체득했다. 그는 앞으로도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영원한 신경해부학 교육자로 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30년을 함께한 순천향대학병원에는 이런 말을 전했다.

“나는 혹시나 내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동료 후배 의사들에게 제 생명을 맡길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기관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1990년 3월 30일 서박사의 마지막 환자 김수용 씨와 기념촬영

“의료인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나아가 완쾌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육체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의료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중략)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란 다름 아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진료 자세는 결코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부(富)나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도 아니요, 자기현시적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삶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신경내과 권위자로서 명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술에 자만하지 않았다. 항상 환자와 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자세로 진료에 임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술을 펼칠 수 있었고 환자들도 그의 정성과 노력을 인정했던 것이다. 환자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겸손한 의사였기 때문이다. 서 박사는 순천향의과대학이 능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의료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대학이 단순한 기능적인 지식인을 배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인간적인 지식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 박사가 생각한 인간 사랑의 정신이야말로 순천향의 정신이다. 순천향대학교의 건학이념은 인간 사랑이다. 거창하고 글로벌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때 상당히 소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인간 서석조

서 박사는 일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살려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아랫사람은 일하기 너무나 편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서 박사를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신바람이 났다. 후배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었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으면 서 박사는 끝까지 남아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향설은 설원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온갖 추하고 잡다한 것들을 모두 눈으로 덮어서 아름다움만 보이게 한다는 점에

서 박사의 인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의 단점, 추한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눈처럼 모든 것을 다 덮어 버리고 아름다운 면만 보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장점만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진료, 40여년의 의사 인생을 마무리

“증대된 대학 및 병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환자 진료를 3월 말일까지로 끝내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환자는 동대문구 용두 1동에 사는 김수용 씨로 진료 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1990년 3월 30일 서석조 박사는 마지막 진료를 했다. 여느 때와 같이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40여 년간의 의사 인생을 마무리했다. 서 박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백내장이 있었고 마지막 10년 가까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

성실, 봉사의 생활 철학

순천향병원의 원훈인 ‘성실, 봉사’는 서 박사의 생활 철학이며 평생을 살아오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말들이다. 고회를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진료를 하면서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 결국, 성실한 자세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 광제인술(廣濟仁術), 인술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구제한다는 광제인술은 서 박사가 평소 추구해온 철학이었다. ■ SCH

“완벽한 팀워크와 최적화된 수술이 빛나다”

최상 서비스 • 최고 의료로 서부권 대표하는 전문의료팀 ‘우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줄곧 서부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의료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에는 부천지역 최초로 ‘생체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이후 2018년 ‘간이식 100례’, 2019년 ‘신장이식 100례’를 달성하며 최고의 실력과 최강의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경기 서부 최초로 ‘기증자 복강경 간 절제술’에도 성공하며 왜 부천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최고의 전문의료팀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글_ 전진용 사진_ 김현아



부천병원 장기이식센터는 항상 ‘최상’, ‘최고’, ‘최적’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그만큼 서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의료팀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장기이식센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감독 하, 장기기증자(뇌사·생체)와 이식(수혜)자의 관리 및 이식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간, 신장, 각막 이식 등 이식수술을 완벽에 가깝게 이뤄내고 있다. 특히 팀원들 간의 완벽한 팀워크를 통해 장기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과 장기별 이식수혜자의 상담, 뇌사이식대기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 등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다.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장기기증 상담 및 관리업무, 장기기증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법적, 행정적 문제의 조정까지 수행하며 전문의료팀으로서의 모든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또한 본원은 2010년 9월 ‘뇌사판정 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 발굴 및 뇌사판정 대상자의 의학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뇌사 판정, 장기 적절과 이식에 관한 일련의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사전 계획에 의한 무수혈 간이식 수술’ 성공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팀은 지난 2011년 5월 국내 최초로 사전 계획에 의한 무수혈 간이식을 성공시켰다. 무수혈 수술은 외과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을 최소화해 수혈을 피하는 첨단 치료법으로 수혈로 인한 발열·오한·구토·알레르기 등의 부작용과 부실한 혈액 관리로 인한 에이즈 등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출혈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간이식 시행 환자 중 수혈을 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1년 부천병원 장기이식팀이 처음부터 무수혈 치료를 계획하여 간이식을 시행한 것은 당시에는 첫 번째 사례였다. 당시 의료진은 조혈호르몬과 철분제제를 대량으로 투여해서 헤모글

로빈 수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환자의 피를 수술 전에 일부 비축하는 작업을 하며 수술을 완벽히 마쳤다.

환자 홍 씨(여, 54)는 간부전으로 수술이 시급했으나, 종교적인 신념으로 수혈 없이 수술하길 원했다. 하지만 간이식 수술은 출혈이 많은 수술이라 당시로서는 국내에선 무수혈로 시도한 적이 없었다. 부천병원 외과 의료진은 수술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수술을 계획했으며, 수술 중 흘러나오는 혈액은 마취과 의사가 셀세이버라는 첨단 기기를 이용해 걸러낸 뒤 다시 투여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무수혈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신장이식 100례 · 간이식 100례 달성

부천병원 장기이식팀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 간이식 100례를 돌파했다. 2007년 4월 첫 간이식을 시작으로 11년 만인 지난 2018년 1월 26일 간이식 100례를 돌파한 것이다. 이 중 뇌사자 간이식이 50건, 생체 간이식이 50건이다. 간이식 수술은 간암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간 기능이 악화되어 생명이 위독한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등에 의한 간경화로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새 간을 이식하여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다.

부천병원이 그동안 이뤄낸 간이식 수술 성과는 눈부시다. 이미 2011년 5월 국내 최초로 무수혈 간이식에 성공했으며 2013년도에는 해외 환자 대상 첫 간이식 성공도 이뤘다. 2016년 6월 인천·경기 서북부권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에 성공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경인 지역 최초로 간·신장 동시 이식에도 성공했다.

주목할 만한 신장이식 성과도 올리고 있다. 2002년 11월 4일 첫 신장이식 수술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식 건수를 늘렸으며 2016년 ABO 불일치 신장이식, 2018년 기증자 복강경 신장절제술 성공 등 눈부신 성과를 내왔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신장이식 100례도 달성했다. 

박무용_ 장기이식센터장(신장내과 전문의, 교수)

“장기기증자의 숭고함, 책임감 있는 의료로 보답”



박무용 장기이식센터장은 지난 2001년 부천병원 개원 당시부터 순천향과 함께 해왔다. 당시에는 많은 이식수술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수술이 늘어나며 이제는 장기이식센터로서의 충실한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20~30건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기기증자의 숭고한 마음에 대한 보답은 우리 의료진의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장기기기증자와 이식 환자 모두에게 이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해 기증자와 환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이식센터의 모든 의료진의 숙련도 높은 수술과 관리를 통해 모든 장기이식 수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기이식센터장으로서 많은 환자들이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아직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8년~10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을 볼 때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좀 더 많은 환자가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비록 부천병원 장기이식센터가 메이저 병원만큼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환자 개개인에 보다 세밀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지 못한 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뇌사자 이식 발생 시에 응급 이식수술을 위해 새벽까지 고생하시는 외과팀과 마취과팀, 수술 전후로 필요한 면담 및 모든 행정절차를 해결해주시는 이보미, 정다혜 간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마무리 했다.

장기기식센터에서 외과 이식수술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옥주 교수는 지난해부터 순천향과 함께 하고 있다. 이곳 부천병원에서는 학생 인턴, 레지던트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전문의가 되면서부터 장기이식센터에서 수술을 맡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은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를 위해 완벽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7~10년을 기다려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힘겹게 기다린 환자들을 위해 보다 완벽한 수술을 하려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센터가 이미 2018년과 2019년 신장이식 100례, 간이식 100례를 돌파한 것은 환자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데이터라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에게 책임감 있는 의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팀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장기기증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더 많은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이 교수는 “경험 많은 선배 의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다른 부서의 많은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옥주_ 교수(외과 전문의)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를 위한 충실한 의료 제공”



이보미_ 코디네이터(전담 간호사)

“이식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보미 코디네이터는 외과 전담 간호사로 특수파트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과 파트 교수님 권유로 장기이식센터와 함께하게 됐어요. 사실 이식 코디네이터는 항상 24시간 호출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장기를 기증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나 이식받는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죠”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장기기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를 연결하고 장기이식과 관련된 의학적, 법적, 행정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중재하는 직업이다. 생체 기증자가 없을 때 뇌사자로부터 기증받기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우선 대기자 등록을 한다. “대기자 등록과 대기를 하는 동안의 모든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선정됐을 때는 상황이 급박하게 이루어지죠. 보통 당일 또는 그다음 날 바로 이식을 진행하거든요” 이 코디네이터가 힘든 순간은 이식 대기를 하는 환자들의 보호자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라고 전했다. “보호자들이 이식 대기를 하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요즘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있어서 그 갈림길에 서게 되거든요.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식을 받고 좋아지는 과정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죠” 이 코디네이터는 “이식 대기자는 매우 많지만,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뇌사장기기증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식 대기자들은 특히나 더 죽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만났을 때 더 많이 격려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INTERVIEW

정다혜 코디네이터는 장기이식을 담당하는 외과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코디네이터를 총원한다는 원내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이제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정 코디네이터는 업무보다 더 힘든 것은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를 지켜보는 일이라 말한다. “제일 힘든 것은 이식을 기다렸던 환자가 이식을 못 받고 돌아가셨을 경우예요. 그런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천병원에서만 2번의 간이식을 받았던 여자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 환자는 2009년도 15살에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았고 이후 잘 지내다가 만성 거부 반응이 생겨서 2020년도에 재이식을 받았어요. 다시 잘 회복해서 지금 결혼도 하고 또 출산까지 한 케이스여서 기억에 남고 보람을 느꼈죠” 장기이식센터만의 장점으로서는 원활한 협력을 꼽았다. “저희는 타 병원이나 다른 과에 비해 가장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디네이터가 여러 부서와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럴 때 협조도 굉장히 잘 되고 신속하게 모든 진행도 이루어집니다. 본원이나 타 병원에 응급한 환자가 있다면 저희가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 코디네이터는 “장기기식센터 코디네이터로서 정확한 정보와 친절을 제공하는 간호사로 남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환자들이 이식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정다혜_ 코디네이터(전담 간호사)

“기증해 주는 마음, 좋아지는 환자 보며 보람 느껴요”



순천향대천안병원 새병원 건립기금 1억원 기부

오동혁 동신포리마 대표, 기업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의미



왼쪽부터 오동혁 동신포리마 대표, 서교일 이사장, 박상흠 천안병원장

1994년 설립된 (주)동신포리마는 PVC 타일 등 친환경 고품질 바닥재, 표면재 등을 생산,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오동혁 대표이사는 “충남의 기업으로서 충남을 대표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새병원 건립에 힘을 보태게 돼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충남지역의 발전에 더 큰 동력이 될 새병원의 성공적인 건립과 개원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새병원 건립에 힘을 보태주신 동신포리마 임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최상의 시스템을 갖춘 새병원을 차질 없이 완공해 지역주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개원 예정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의 1천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다음은 오동혁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천안병원은 오동혁 동신포리마 대표로부터 새병원 건립기금 1억원을 기부받았다. 지난 3월 21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은 서교일 이사장, 박상흠 천안병원장, 동신포리마 오동혁 대표이사 등 양측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_ 편집부 사진_ 동신포리마 제공

Q.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창업주이신 오익중 신흥그룹 회장님께서 심장 응급상황으로 1996년 천안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pacemaker 시술을 받은게 인연이 됐습니다. 86세이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계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1994년 창업 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안전경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왔지만 불가피한 안전사고가 몇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이 천안병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순천향대와 산학협력을 시작해서 ‘일학습병행제’도 운영하고 있고 순천향대 졸업생들이 당사에 취업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Q. 이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새병원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한 덕분에 2022년에 좋은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게 의미 있겠다고 판단하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최우선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새로 건립되는 순천향대병원에 바라는 점이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주신다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병원의 소재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뿐 아니라 우수한 의료인력의 소프트웨어도 확충하여 천안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거점병원으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평소 기부를 하시는데 혹시 특정 주제나 특정 관심 분야가 있으신가요? 또한, 기부를 하기 전에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 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방안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반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까지 기부를 통해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선행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누가 먼저 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기부의 최고 가치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모인다면, 기부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Q. 기부행위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확대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익이 많이 나와 기부를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회사경영을 더 잘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의 정신과 내용을 임직원들과 공유해서 각자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Q. 동신포리마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신포리마는 1994년 충남 홍성에서 창업한 PVC 바닥재 제조 중견기업입니다. 재일교포이신 창업주께서 일본에서 같은 제품으로 사업에 성공하신 후, 고국에 기술전수를 통한 후배 양성과 고용 창출 그리고 납세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신 기업입니다. 회사명 ‘동신(東新)’은 동쪽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국내에는 동신아트타일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90% 이상의 제품은 미국, 유럽, 호주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Q. 기부 또는 기업활동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은 건강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식습관을 소개해 주시지요.

특별히 따로 하는 운동은 없는데 뭐든지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한다

연구진 역량 강화 위한 연구부 및 SCH 연구회 개설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희귀, 난치 질환 연구 활성화와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 연구부의 비전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2022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연구부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다. 연구비 수주도 크게 늘었다. 2018년 26억6천만원에서 지난해는 65억7천만원으로 증가해, 지난 5년간 2.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SCH 연구회,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연구진 역량 강화를 위해 SCH 연구회도 개설했다. 의료기기연구회와 빅데이터·AI연구회를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인허가 사업 추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처리와 딥러닝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23회 진행했다. 올 2월에는 의료기기, 빅데이터와 AI 등 연구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제로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 적용 의료기기 개발’, ‘핸드 스펙시터와 시티(Hand SPECT/CT) 스캔 자세 고정기구 개발’, ‘AI기반 수술 전 위험도 평가 플랫폼’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임상 적용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5년 이내 연구비 수주액 10위권 진입, 임상시험지원팀(ARO)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자 교육 용역사업도 수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식약처와 산하기관의 의료기기 1~4등급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임상전문가가 직접 의료기기의 시술 과정을 소개하고, 임상현장 실습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장재영 연구부원장은 “우리 병원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연구비 수주액 10위권 진입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22년 1월 연구부를 신설했다. 장재영 소화기내과 교수가 연구부원장을 권순호 신장내과 교수가 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상시험센터와 연구대상자보호센터, 임상의학연구소, 인체유래물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추가로 첨단재생의료센터, 연구행정팀을 신설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위탁하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원내에 설치해, 병원 특성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한 임상시험지원팀(ARO)에서는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임상시험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H

부천병원,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SCH 홍보부스 운영, 현지 업체와 비즈니스 상담

부천병원이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에 참석해 SCH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국제 진료 협력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SCH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다수의 현지 유치 업체와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주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에어아스타나와 국영 항공사 간 운임 할인 협약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카자흐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공동 컨퍼런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부천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고려인 단체 방문 시 부천시가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 환자들을 위해 영양·문화·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외국 문화와 음식 이해’를 주제로 카자흐스탄 유명 호텔 식품부 총괄 부주방장 출신 ‘맘베코바 알루야’를 초청한 간담회를 진행해, 병원 영양사·조리사의 외국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지난 3월 29일, 4월 27일에는 ‘러시아 문화와 음식 알리기’와 ‘중앙아시아 문화와 음식 알리기’ 교육도 각각 진행됐다.

부천병원은 외국인 환자 입원 시 전담 코디네이터와 임상영양사 면담을 통해 기호도, 알레르기, 질환 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 외국인 환자식 품평회를 여

는 등 외국인 환자 맞춤형 식단 개발에 힘써왔으며, 2012년부터는 조리사가 직접 ‘조리·개별 배식·퇴식’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전담제로 외국인 환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현재 환자와 의료진을 잇는 14명의 외국어 코디네이터가 상시 근무하며 환자 유치 및 진료 지원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형철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국제 의료 협력단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교수)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환자 증가에 대

비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상된 국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국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업무 협약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SCH 홍보 부스를 운영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 로봇수술로 고령 환자 양측성 신장암 동시 수술 성공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가 로봇수술로 고령 환자의 양측성 신장암을 동시에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74세 남성 이 씨는 양쪽 신장에 각각 5cm, 1.7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돼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았다. 신장은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과다 출혈 위험이 크고, 이 씨는 고령이므로 장시간 수술 및 마취 부담이 있었다. 이상욱 교수는 종양을 신속·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른

로봇수술로 이 씨의 양측성 신장암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00L가 넘는 혈액을 거른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고 무력감, 오심, 구토, 전해질 불균형, 빈혈, 고혈압, 전신 부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신장이 90%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투석 치료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

양측성 신장암의 경우 대부분 양측을 동시에 수술하지 않고 한쪽을 먼저 수술한 뒤 약 4주 뒤 반대쪽을 수술한다. 그러나 이상욱 교수는 고령의 환자에서 연속 마취의 위험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양측 신장암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종양 크기가 4cm 이상인 왼쪽 신장은 ‘근치적 신장 절제술’을, 오른쪽 신장은 ‘부분 신장 절제술’을 시행했다. 오른쪽 신장은 신장 혈관을 겹자로 잡아 일시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종양만 제거해 신장 기능을 살렸다. 이상욱 교수는 “로봇수술기는 사람 손과

유사한 관절이 내장되어 있어 정교하고 신속한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 진행 시 다른 장기 및 신경 손상이 적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특히 과다 출혈 위험이 높은 신장암 수술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로봇수술은 3D 영상으로 입체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까지 확대해 정밀하게 확인하며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0.8cm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상처가 작고 출혈량도 적어 합병증 우려가 큰 고령 환자임에도 양측성 신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성 신장암 로봇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환자 이 씨와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동길·송금종 교수 '낭만닥터 김사부3' 의학자문의로 활약

천안병원 의료진이 4월 28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SBS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 의학자문의로 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좌측부터 응급의학과 정동길 교수, 외과 송금종 교수

의학자문을 담당한 의료진은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정동길 교수, 외과 송금종 교수다. 시즌1과 2에서도 의학자문을 담당한 두 교수는 이번 낭만닥터 김사부3에도 참여함으로써 모든 시즌에서 의학드라마로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두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의 현장 경험과 에피소드를 작가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대본의 감수 및 수정을 비롯해 응급상황 대처, 수술 등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제작진과 배우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기관내삽관술, 수술실의 의료기구 사용법·수술복착용법·피부절개 및 봉합법 등의 실습 기회도 제공했다.



정동길·송금종 교수 일문일답

Q. 의학자문을 맡게 된 배경은?

정동길: 낭만닥터 김사부를 쓴 강은경 작가가 사촌이다. 식사 자리에서 “내 얘기를 쓰면 그게 드라마야”라는 농담을 자주하곤 했는데 그때 마침 강은경 작가가 의학 드라마를 쓰게 되면서 조언 요청이 왔다. 시즌1부터 시즌3까지 모두 참여했다.

송금종: 정동길 교수의 추천으로 하게 됐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응급실에서 시작해 수술실로 끝나는 장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응급의학 분야에는 정동길 교수가, 수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맡고 있다.

Q. 의학자문의 역할은?

정동길: 드라마에는 여러 의학적인 장면들이 등장한다.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의학적인 용어를 담아 작가에게 전달하면,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대본을 작성한다. 이후 감수 및 수정, 자문 등을 통해 최종 대본을 완성한다. 최종 대본이 나오면 배우들의 강연과 실습도 진행한다.

Q. 촬영 전 배우들이 천안병원에 다녀갔는데, 어떤 실습을 했나?

정동길: 시즌3에서는 이신영, 이홍내 배우가 다녀갔다.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시작했고, 실습 인형으로 올바른 자세법, 호흡법, 기도삽관 등을 배웠다. 이외 전반적인 의료행위들도 교육했다.

송금종: 전 시즌에서는 이성경, 안효섭, 김주현, 소주연, 신동욱 배우가 실습에 참여했다. 실제 현장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을 견학했고, 수술복 착용법, 손 씻는 법, 수술기구 사용법, 피부절개 및 봉합법 등 다양한 실습을 거쳤다.



Q.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점과 실제 현장 모습과 다른 점은?

정동길: 의학자문으로 참여한 드라마가 시즌3까지 이어져 기쁘다. 글로만 보던 장면이 이렇게 영상으로 그려지는구나 하며 놀라기도 한다. 실제 현장과 다른 점은 극적으로 보여야 하는 드라마 특성상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리얼리티가 있다고 느낀다.

송금종: 다른 의학 드라마와 비교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장면은 최고지 싶다. 수술 장면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하거나 음악을 틀기도 한다. 실제 수술방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웃음).

Q. 아쉬운 점도 있다던데...

송금종: 아쉬운 점은 공간사용이나 환자 양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이 드라마를 ‘우리병원에서 촬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다. 현재 새 병원 건설이 한창이다. 만일 새 병원 완공 시점에 시즌4 촬영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Q. 마지막으로

송금종: 의학자문 과정 모두가 재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만약 시즌4가 이어지고 시기가 잘 맞는다면 새 병원에서 촬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동길: 시즌4를 천안병원에서 촬영하게 된다면 의학자문은 물론이고, 119구급대원이거나 지나가는 의사 역할 등 카메오로도 참여해보고 싶다(웃음).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 대구·경북서 유일 신규 선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명칭: 새싹지킴이병원)으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신규 선정됐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치료와 의료자문, 관할 사·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이 사업은 2022년 첫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8개 병원을 지정하였고, 2023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전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신규 5개 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13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와 학대 조사·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변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황성일, 재활의학과 교수)를 통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 및 사례관리에 대한 원내·외 자문 활동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황성일 아동보호위원장은 “전 교직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로 학대 피해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광역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하겠다”라며, “아동보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학대 피해 아동 치료와 판단, 의료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순천향햇살아이지원센터’를 통해 2007년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진료비, 수술비,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등 ONE-STOP 통합적 아동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과 황성일 아동보호위원장(재활의학과 교수)



순천향대 구미병원, 개원 44주년 기념식수

새 외래관의 성공적 건립과 순천향 인간사랑 백 년의 약속 기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4월 19일 본관 로비에서 개원 44주년을 기념하고 새 외래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순천향 인간사랑 백 년의 약속’을 기원하기 위해 식목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수는 정일권 병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보직자들과 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구미병원의 성장과 발전, 지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정일권 병원장이 기증한 높이 2.5m 폭 3m 크기의 특별한 와송(누운 소나무)을 본관 정원에 식수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설립자 故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간사랑·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참된 의술과 봉사, 진정한 인간사랑 정신의 백 년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일권 병원장은 “44년간 실천해 온 인간사랑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지역민에게 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진력하여 지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거점병원이 되자”고 말했다.



기념식수(왼쪽부터 임기섭 총무팀장, 강희남 사무2처장, 정일권 병원장, 이동기 기획실장, 김진현 사무1처장)



정일권 병원장과 주요보직자, 교직원 기념식수



기념식수 표지석



복부 혈관 주위 지방, 대사증후군 위험 연관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영상의학과 융합연구팀



좌측부터 제1저자 신장내과 교수 이해경,
교신저자 영상의학과 교수 이은지,
교신저자 신장내과 교수 권순호

복부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이 과다 축적되거나 지방 조직의 질(quality)이 낮으면 대사이상의 증가(고혈압, 고혈당, 이상지혈증, 비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장내과(공동교신저자 권순호 교수)와 영상의학과(공동교신저자 이은지 교수)의 융합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최근 유럽영양대사회 공식잡지인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에 ‘CT에 의해 평가된 복부 혈관 주위 지방 조직과 심혈관질환 위험 사이의 연관성(Association between abdominal perivascular adipose tissue quantity and quality assessed by CT and cardiometabolic risk)’ 논문으로 발표했다.

복부, 간, 근육 등에 침착되는 이소성 지방(ectopic fat)은 대사증후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복부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은 이소성 지방 중 하나로 기존 연구들은 이미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일반 인구에서 복부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이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 위험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 복부 및 골반 CT를 촬영한 50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혈관, 신경, 임파관이 있는 콩팥굴(renal sinus) 지방 조직과 복부대동맥 주위 지방 조직의 양을 측정하고, 지방 조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지방 감쇠 계수(fat attenuation index)를 확인했다.

대상자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의 대사이상의 숫자(0, 1-2, ≥3)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이 없는 그룹에서 1-2개 있는 그룹, 3개 이상 있는 그룹(대사증후군)으로 갈수록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의 양은 증가하고 지방 감쇠 계수는 감소했다. 특히 체질량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교란 변수들을 고려한 후에도,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의 양은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가 3개 이상, 즉 대사증후군인 그룹에서 대사이상의 정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반면, 지방 감쇠 계수의 감소는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1-2개인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복부 내에 있는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의 과다는 대사증후군 발병과 관련이 있고, 지방 조직의 질의 변화는 경미한 대사 이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문의 제1저자인 신장내과 이해경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복부 혈관 주위 지방 조직을 CT 영상으로 평가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비교적 낮은 환자에서도 잠재적으로 유용한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대사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의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였다”고 말했다. 



뇌전증 환자 사망 위험, 일반인보다 2.25배 높아

발작 및 기저질환, 자살 등 외부적 요인 적극적 관리 필요

뇌전증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2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팀은 최근 ‘뇌전증 환자의 조기 사망 및 사망 원인: 전국 인구 기반 신환자
코호트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Neurology’에 발표했다.



문혜진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뇌전증 환자 주요 사망 원인 ‘뇌전증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

외인사 비중도 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뇌전증 환자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새롭게 진단 및 치료된 뇌전증 환자 13만 8,998명 중 2만 95명이 사망했으며, 뇌전증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2.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뇌혈관질환(18.9%),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악성종양(15.7%), 중추신경계 악성종양(6.7%), 외인사(7.2%), 폐렴(6%) 순이었다. 외인사 중에서는 자살(2.6%)이 가장 많았다. 뇌전증 및 발작 상태로 인한 사망은 1.9%를 차지했다.

별다른 유발요인 없이 발작이 2회 이상 반복되면 뇌전증으로 진단

문혜진 교수는 “뇌전증 환자의 사망 원인은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발작에 따른 폐렴, 낙상, 자살 등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뇌전증 환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발작 및 기저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부상 예방 교육, 자살 생각 모니터링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전증은 뇌의 전기적 이상 현상으로 뇌전증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한다. 별다른 유발요인 없이 뇌전증 발작이 2회 이상 반복되면 뇌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뇌전증 발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신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는 등 구나 발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부터 잠시 멍해져 대답을 못 하거나, 의미 없는 반복 행동, 아주 짧게 움찔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뇌전증 발작 증상의 유무와 반복 여부를 반복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

뇌전증은 일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미 정상 발달이 이루어진 뇌에 종양, 감염, 외상, 뇌졸중 등이 발생해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치매와 같은 뇌의 퇴행성 질환도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 뇌전증을 진단하려면 전문의의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뇌전증 발작 증상의 유무와 반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뇌파검사’와 ‘뇌 MRI 검사’를 시행해 뇌전증 발작의 종류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외래 뇌파검사에서 발작파가 관찰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 뇌파를 파악하는 ‘24시간 뇌파 감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약물치료

뇌전증 치료의 기본은 항뇌전증약제를 통한 약물치료다. 3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항뇌전증약제 중, 뇌전증의 원인 질환, 뇌파 특성, 동반 질환 등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잘 고려해 항뇌전증약제를 선택해야 한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뇌전증약제를 선택한다. 적절한 약제의 선택 못지않게 항뇌전증약제가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하며 발작 억제 효과를 나타내도록 성실히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물치료가 실패한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문혜진 교수는 “최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 뇌전증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환자가 뇌전증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뇌전증 환자의 조기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뇌전증 환자의 외상 관리, 자살 사고 모니터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예방 가능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각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환자에게 큰 도움주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하는 기술 중 하나다.



장시형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병리과 교수

유전적, 환경적 영향으로 유전자에 다양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암'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2020년까지 37년째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인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라고 한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는데, 유전자 검사방법의 발전(NGS 등)과 표적치료제의 개발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돌연변이 수백 개를 한번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은 유전자 돌연변이를 분석하는 기술 중 하나다. 돌연변이를 분석하는 소위 '단일 유전자 분석법'들은 이전에도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은 기존 방법과는 달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단 한 번의 검사로 검출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즉, 방대한 유전자의 정보를 적은 검체를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표적치료에 효용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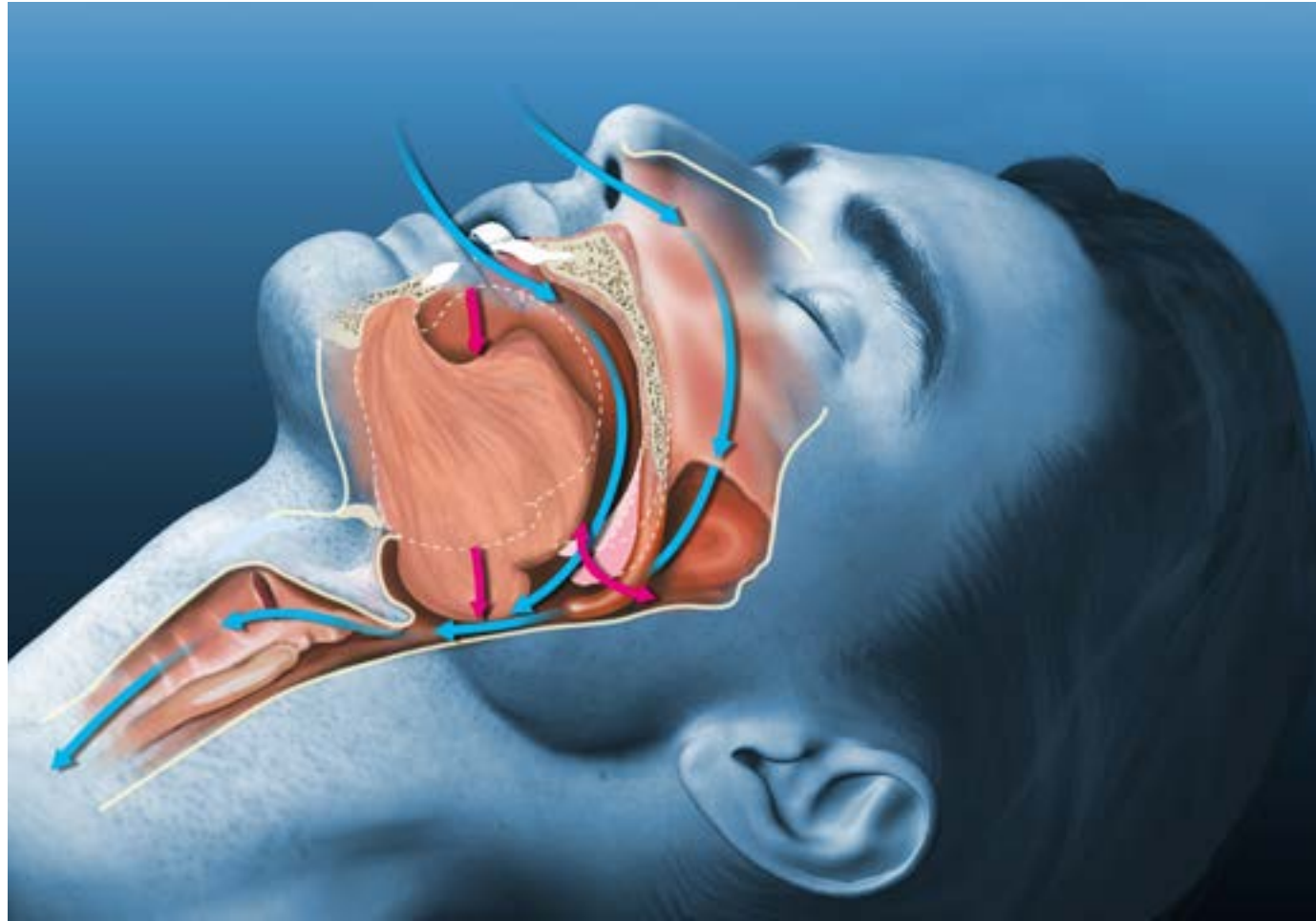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은 암환자의 표적치료제 사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표적치료제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대개 입원 후 주사제 등으로 투여받아야 하는 항암제에 비해 복용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은 반면, 암세포에 대한 반응성은 좋아서 생존율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암종에서 다양한 유전자 표적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다. 채취되는 검체의 양은 제한

적인데, 검사를 해야 할 유전자의 수는 많고, 또 기존의 검사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들도 존재한다. 또한 개별 유전자에 대해 모두 검사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충분한 검체를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양의 검체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이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해 환자의 암조직에서 주요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하고, 환자 개인에게 맞는 표적 치료제를 찾을 수 있다.

암 분류와 진단에 필수

암의 명확한 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암의 분류, 즉 암의 진단은 전통적으로 암세포가 몸의 어떤 세포에서 발생했고,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에 따라 이름 붙이고 있다. 암종의 유전적 이상에 대한 연구로 유전적 특성을 기반으로 암을 분류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뇌종양 등에서는(전통적인 형태학적인 특성보다) 유전적 특성을 바탕으로 종양을 진단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장기의 많은 종양들도 유전적 돌연변이 종류로 진단이 가능하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은 주요 유전자의 돌연변이 뿐 아니라 희귀하고 드문 돌연변이까지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의 분류와 진단에 점점 필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얻어진 유전정보는 환자의 예후 예측에도 도움을 주는데 채취한 암조직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분자병리학적인 분류를 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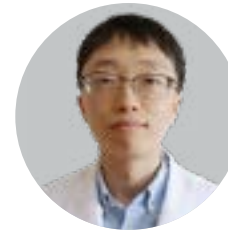
아직은 고가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검사비, 비싼 표적치료제의 약값 등 제한점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은 영향력이 날마다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암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진단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두통·어지럼,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 받아야

수면은 일생의 약 1/3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수면은 단지 각성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로 여겨질 수 있으나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신대섭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신경과 교수

나쁜 수면의 질은 각종 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높이며,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 임상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수면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특이증상을 가지고 내원하기도 하지만 두통이나 어지럼과 같은 비특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 주간에 졸리거나 피곤함 더해

폐쇄수면무호흡증은 우리나라 성인에서 남자 4.5%, 여자 3.2% 유병률을 보이는 흔한 수면장애이다. 수면 중 상기도의 완전 또는 부분적 폐쇄에 의해 공기 흐름이 제한되어 뇌 등 신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교감신경 활동을 증가시켜 잦은 각성과 혈압 및 맥박의 상승을 초래한다. 보통 같이 잠을 자는 배우자가 환자의 코골이나 무호흡을 보고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환자 대부분은 자면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오히려 주간에 증상을 느끼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에 자주 졸거나 피곤하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한다.

많은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두통, 어지럼 나타나

두통과 어지럼도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두통은 15~60%로 흔하며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을 호소하는 만성 두통 환자에서 폐쇄수면무호흡증 유병률이 7배 가량 높았다는 연구도 있다. 국제두통학회에서도 수면무호흡두통을 별도의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침 혹은 기상 시 두통을 특징으로 한다. 무호흡에 의한 산소포화도 감소와 고탄산혈증 등이 발생기전으로 알려져 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어지럼은 폐쇄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증상은 아니지만, 다수의 환자가 어지럼을 동반하고 있다. 폐쇄수면무호흡에서 발생하는 반복



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전정기관 손상 및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 변화가 나타나 어지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어지럼 환자 중 20%가 폐쇄수면무호흡증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수면장애와 관련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두통과 어지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나, 환자들이 치료에 대해 불만이 가장 많은 질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원인을 알고자 MRI, 전정기능검사 등 고가의 검사를 시행함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고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즉 많은 두통, 어지럼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주간 졸림, 수면 중 자주 깨는 경우 등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높아

폐쇄수면무호흡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두통, 어지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심한 수면무호흡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혈압,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3~4배 이상 증가하며 당뇨병과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잡힌 식사가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듯이 좋은 수면 역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는 두통, 어지럼 등이 있다면 수면장애를 의심하고 신경과 전문의에게 문의하고 진료받는 것이 필요하다. ■ 

챗GPT가 마비환자의 생각도 읽는다

뇌 손상, 마비 환자의 의사전달에 도움 기대

미 텍사스대 연구진이 인공지능으로 뇌 영상을 해독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챗GPT나 바드 같은 인공지능(AI)이 온몸이 마비된 환자의 뇌 영상을 해독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연구가 발전하면 정신은 온전하지만 온몸이 마비돼 외부와 단절됐던 환자가 가족이나 의료진과 의사소통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텍사스대 컴퓨터과학의 알렉산더 후스(Alexander Huth) 교수 연구진은 2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뇌 언어 생성 영역을 찍은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사람이 생각한 문장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글_ 이영완 과학전문 기자



뇌 건드리지 않고 영상만으로 생각 읽어

과거에도 뇌파를 전기신호로 바꿔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있었다. 이 방법으로 마비 환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류 변화를 포착해 생각을 단어나 문구로 구현한 적이 있지만, 뇌에 전극을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했다. 전극 없이 두건을 씌워 뇌파를 측정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전극 이식보다 성공률이 낮았다. 또 앞서 연구들은 해독 가능한 단어나 문구의 수가 제한됐다. 연구진은 뇌파 대신 뇌 활동을 찍은 영상만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뇌의 특정 영역이 활동하면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늘어난다. fMRI는 그런 곳을 붙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보여준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 3명에게 MRI 장치 안에 미국 뉴욕타임스의 인터넷 방송인



‘모던 러브(Moren Love)’와 예술단체인 모스(The Moth)의 ‘라디오 아워(Radio Hour)’ 총 16시간 분량을 듣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참가자가 특정 단어나 문구, 의미를 들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뇌 지도를 만들었다. 다음에는 fMRI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단어나 문구, 문장에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도록 했다.

단어까지 맞추지 못해도 의미 전달은 성공

이번 시스템 역시 처음에는 뇌 활동을 언어로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추가해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인 GPT로 특정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예측하는 방법이다. 처음 영상을 보고 GPT가 가능한 문구나 문장들을 제시한다. 다른 인공지능은 그에 맞는 뇌 활동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 영상과 비교해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문구를 이어 문장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인공지능 학습에 쓰지 않았던 인터넷 방송을 들려줬다. 그러자 이번 BCI 시스템이 단어와 문구, 문장을 만들어 실제로 참가자들이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실험 참가자에게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말을 들려주자 인공지능은 뇌영상을 기반으로 ‘그녀는 아직 운전

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독했다. “소리를 질러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랐어요. 대신 ‘날 좀 내버려주세요’라는 말을 들려주자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하더니 ‘날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라고 말했어요’라고 번역했다. 연구진은 특히 이 기술이 단어까지 일치하지는 않아도 이야기의 요점을 파악하는 데 뛰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번 기술은 사람이 말하거나 영상을 볼 때도 같은 해독 능력을 보였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소리를 없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며 뇌 영상을 찍었다. 영화는 작은 용이 다른 커다란 용에게 공격을 받는 내용이었다. 인공지능은 뇌 영상을 분석해 ‘그가 나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라고 해독했다.

뇌졸중, 전신 마비 환자가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 기대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말을 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 후스 교수는 “언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말이 아닌 생각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뇌 손상이 뇌졸중, 전신 마비 환자가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먼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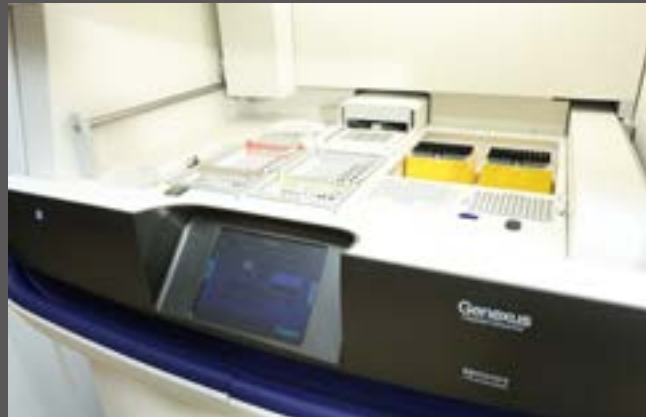


공지능 학습량을 늘려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fMRI는 고가의 장비여서 쉽게 쓰기 어렵다. 후스 교수는 휴대가 가능한 ‘기능성 근적외선 분광(fNIRS)’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fNIRS는 근적외선으로 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fMRI보다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휴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기술이 사람의 생각을 훑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한 사람의 뇌영상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다른 사람의 영상은 해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누구나 생각을 엿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듀크대의 생명윤리학자인 니타 파라하니(Nita Farahany) 교수는 사이언스 인터뷰에서 “사생활 보호는 여전히 이런 신경과학 기술에 큰 윤리적 문제”라며 “약용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Genexus

천안병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

빠르고 정확한 유전정보 제공 ... ‘암’ 정밀치료 선도



☑ 유전자 수백 개를 한번에

수백 개의 유전자를 한번의 검사로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주며,
적은 검체로도 방대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한다.

☑ 표적치료의 효용 극대화

암 조직의 돌연변이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 표적치료제 사용여부 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 최적의 표적치료제를 찾아준다.

☑ 암 분류와 진단에 필수

희귀하고 드문 돌연변이까지도 검출해줌으로써 암의 명확한 분류와 진단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치료방향 결정과 빠른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순천향대.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사업 선정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2023년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월 14일 밝혔다.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의 중대형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할 중장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산업 경제로 성과확산을 촉진하는 신기술 시드 창출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테마기술의 전주기 육성·지원을 위하여 1단계 3년 수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단계사업 연계를 2단계 3년, 3단계 4년 최대 10년간 중장기 지원을 추진한다. 순천향대는 충남권 대표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메타 플랫폼 원천기술개발 사업단(사진: 단장 신현웅 생명과학과 교수)은 사업 기간 동안 전국 50%가 집중되어있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및 온배수 저감을 위해 기초원천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 미세조류 대량생산과 전략소재 제품화에 주력해 지역연계의 신 성장 동력 전환 플랫폼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순천향 봄꽃 KBS 열린음악회 '성료'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4월12일 교내에서 주민 등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문화공연 '순천향 봄꽃 KBS 열린음악회'를 성공 개최했다. 순천향대는 전국적 벗꽃 명소인 순천향 벚꽃 캠퍼스에서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 제공과 대학의 건학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열린음악회를 기획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김태홍 충남도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등을 비롯해 도민 1만여 명이 모여 축제의 향연이 펼쳐졌다. 김승우 총장은 “이번 열린음악회는 충청남도도와 아산시, 그리고 순천향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비적인 봄맞이 축제였다”며 “지역 거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며 동반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건학 45주년 기념식 개최, 새로운 UI선포 등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지난 31일 아산 캠퍼스 향설광장에서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과 김승우 총장, 김용하 교학부총장,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학 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건학 45주년을 맞아 향설광장과 에스컬레이터, 신규 UI 등 새롭게 달라진 우리 대학을 위해 힘써주신 순천향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고등교육의 위기에 도 '의도된 침착함'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학과 부속병원 교직원들이 매월 1만원씩 기부해 조성한 '밀알장학금' 5000만원과 '희망풍선 장학금' 5000만원을 장학생을 대표한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했다. 순천향대는 이날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투영하고 차별화된 대학 혁신을 바탕으로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UI(University Identity)를 선포했다. 외형을 이루는 직사각형(Rectangle)은 라틴어 어원 '올바르게 이끌림(rectus+angulus)'에서 미래 인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 의지를 담고 있다.



하이플렉스 교육혁신 홍보대사에 EXO '수호' 위촉

순천향대는 3월 15일 부속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케이팝 아티스트 그룹 EXO의 수호를 '하이플렉스' 교육혁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하이플렉스는 학생들이 대면·비대면, 실시간·비실시간의 수업 참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도의 학습방식이다. 순천향대는 메타버스를 하이플렉스 교육 플랫폼에 이식한 최첨단 '메타버스 하이플렉스' 강의실을 구축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과 비실시간 학습을 모두 충족하는 '메타버스 하이플렉스 커넥션' 교육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우 총장은 “홍보대사직을 수락해준 EXO 수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하이플렉스 교육혁신의 글로벌 선도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준석·김현아 교수 2023년
신진연구 지원과제 선정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 박준석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현아 안과 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지초 우수신진연구 사업 과제에 선정됐다. 이준석 교수는 '게임엔진을 활용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3차원 가상현실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김현아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근시 진행 연관성 규명 연구'가 연구주제이다.



박준석
소화기내과 교수



김현아
안과 교수

몽골 어린이들에게
골전도임플란트와 인공와우
수술 지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3월 9일 이치규 이비인후과 교수의 집도로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선형성수축귀환아인 마르가드 에르덴(10살·여)에게는 골전도임플란트 삽입술을, 고도감각신경성 난청 환아인 바담 랑호와(12살·여)에게는 인공와우 삽입술을 시행했다. 환아들은, 지난해 9월 순천향대서울병원 의료봉사단이 몽골 울란바토르 브릴리언트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던 중 발견했다. 이후 진료기록과 사회복지상담을 통해 수술비 지원이 가능을 확인하고, 자선의료후원금으로 수술비와 입원비, 의료기기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인 IHC는 항공료와 한국 체재비를 후원했다.



당뇨내분비센터, 당뇨병 교육인증병원 지정



서울병원 당뇨내분비센터가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증하는 당뇨병 교육인증병원에 지정됐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2020년부터 당뇨병 교육인증병원 지정 제도를 만들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병원에서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분비내과 전문문의의 당뇨병의 치료와 관련된 질의응답과 안과 전문문의의 망막병증에 대한 설명, 당뇨병 전문간호사의 고혈당/저혈당의 대처방법, 아픈 날/여행 시의 당뇨병 관리, 효과적인 운동법과 발 관리, 영양팀의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사 방법 교육, 약제팀의 당뇨병의 약제에 대한 설명, 웃음 치료 전문강사의 웃음치료 강의, 사회사업팀의 사회복지정보제공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LIG, 순천향대서울병원에 의료취약계층 지원 기부

LIG가 서울지역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기부금 5천 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3월 2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열렸다. LIG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기부사업을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총 1억 5천만원을 기부했다. LIG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LIG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LIG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은 “LI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알고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의료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퀴논시립병원장 병원 방문



2012년부터 용산구 및 순천향대서울병원과 상호협력 관계를 맺고 교류 중인 베트남 빈딘성 퀴논시립병원의 찐끼 허우 병원장 일행이 3월 24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 상호 병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검진센터와 외래, 수술실 등 병원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이 2013년 퀴논시립병원에 백내장수술센터에 의료장비를 기증하고 3천여명의 환자 수술을 지원한 인연으로 이뤄졌다. 이성진 부원장은 2012년 용산구의 요청으로 퀴논시를 첫 방문해 백내장 환자 실태를 파악한 뒤 해마다 두 차례 휴가를 내려 퀴논시를 찾았다. 이성진 부원장과 의료진은 센터에서 상태가 심각한 100여 건의 백내장 수술을 직접 집도하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가벼운 환자에 대해서는 현지 의료진에게 안과 수술 기술을 전수해왔다.

부천병원, 정부 지원 '우수 신진 연구 과제' 2건 선정

부천병원 차한규 성형외과 교수와 한정우 안과 교수가 정부 지원 '우수 신진 연구'에 선정돼 3년간 약 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우수 신진 연구' 지원사업은 정부가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다. 차한규 성형외과 교수는 '암 수술 후 발생한 이차성 림프부종에서 지방세포 주변 미세환경의 조절을 통한 3차원 생체의모델 개발'을, 한정우 안과 교수는 'X염색체 관련 망막 층간분리에서 광수용체 세포 사멸 메커니즘 분석 연구'를 주제로 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차한규 성형외과 교수



한정우 안과 교수

부천병원, '2023년 1차 감염관리 아카데미' 개최

부천병원이 최근 항설 대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1차 감염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감염관리 아카데미'는 감염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전 직원 대상 연간 총 4회 시행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감염·재난 신속 대응 TFT 구성원, 응급의료센터 근무자, 감염관리 매니저, 긴급치료병상 및 중환자실 근무자 등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23년 감염관리 아카데미 교육 주제는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탈의'로, ▲신종감염병 역학적 특성과 감염관리 방법 ▲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 및 노출 최소화 절차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탈의(Level D)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 교육을 실시해 감염관리 이해를 높였다.



부천병원,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식

부천병원이 최근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되어 현판식을 진행했다.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은 대한당뇨병학회가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당뇨병 환자·보호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5년마다 자격요건을 재심사한다.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당뇨병 교육 팀원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부천병원은 전문적인 당뇨병 교육 인력이 매주 2회 정기적으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및 보호자 맞춤형 개별 및 집단 교육,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병원, 무의촌 장봉도에서 의료봉사 펼쳐

부천병원 의료봉사단이 최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장봉혜림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쳤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재활치료사, 자원봉사자 등 39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장봉혜림원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신장내과·영상의학과·이비인후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혈압검사, 정밀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의약품과 손소독제를 제공했다. 이날 봉사에는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함께 시설 환경 정비 봉사(영농봉사) 활동 등에 참여해 봄을 맞이하는 화사한 시설 가꾸기에 힘을 보탰고, 양말 1,000 켤레를 기부했다. 부천병원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월 장봉혜림원에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쳐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의료봉사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영상의학과 이형남 교수, 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젊은의학자상 수상



천안병원 영상의학과 이형남 교수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젊은의학자상은 학회에 소속된 40세 미만 연구자 중 연구실적이 가장 높은 회원에게 주는 상으로 평생 1회만 수상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30편 이상의 SCI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회로부터 인터벤션영상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의학 및 치료 분야를 개척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 교수가 발표한 주요 논문은 ▲객혈 환자의 조기 기관지동맥 색전술 효과 ▲투석혈관 치료를 위한 SUPERA 스텐트 삽입술 ▲간암 환자의 경동맥 화학 색전술 및 방사선 색전술 ▲투석혈관 치료의 해부학적 변이의 중요성 ▲위장관 출혈 환자의 초선택적 색전술 ▲산후출혈 치료를 위한 자궁동맥색전술 연구 등이다.

산부인과 양은정 교수, 정부지원 '생애 첫 연구과제' 선정

천안병원 산부인과 양은정 교수가 '2023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생애 첫 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만 39세 이하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양 교수의 선정과제는 '자궁경부암에서 PD-L1과 관련된 중앙 대식 세포의 CCL2-CCR2의 탐색 및 제어를 통한 면역치료 방법 제시(Proposal of immunotherapy method through search and control of CCL2-CCR2 of tumor associated macrophages with PD-L1 in cervical cancer)'로 3년간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천안병원이 5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이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이다. 천안병원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종합평가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새로 지정됐다. 박상흠 병원장은 "응급의료 시설·인력·장비를 앞으로 지속 보강해 최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건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1회 항설 리서치 콜로키움 성료



천안병원이 4월 13일 저녁 병원 교육관 MBL강의실에서 '제1회 항설 리서치 콜로키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콜로키움이란 심포지엄보다는 덜 격식을 차린 형태의 학술 모임이다. 주제 발표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천안병원, 순천향대의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이 함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콜로키움은 저녁 5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수 및 연구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3개가 이어졌다. 주제 및 연자는 ▲당뇨발 관련 임상 및 기초연구(순천향대 천안병원 최환준 교수) ▲세포의 운명과 질병 진행을 제어하는 세포의 힘(SIMS 황용성 교수) ▲암유발 유전자에 따른 단일 엑소좀 복잡성 분석(순천향대의대 최동식 교수) 등이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은 "병원-대학-SIMS의 연구노하우 및 공동연구 현황과 전망 등을 공유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연 4회 이상의 지속적인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의생명 연구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2024년 새병원 개원과 함께 '순천향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병원-대학-SIMS가 결합된 순천향의 뛰어난 의생명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의생명 연구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중고생 건강영향조사 실시



천안병원의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성인 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 마친데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건강도 살폈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청소년 건강영향조사는 시간경과에 따른 건강영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과거 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중고생)들. 조사 지역과 학교는 태안군의 ▲소원면(만리포중, 만리포고), ▲원북면(원이중), ▲근흥면(근흥중) ▲태안읍(태안중, 태안여중, 태안고, 태안여고) 등이다. 조사는 ▲노출수준과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기초임상검사 ▲중금속·환경호르몬 검사 등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조사 당일 참여자들에게 환경성 질환의 위험성 인식과 예방관리 등을 위한 환경보건교육도 실시했다. 태안 유류사고 지역의 청소년 대상 건강영향조사는 2009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총 7회 실시됐다. 천안병원 충남환경보건센터는 충남도 환경기반 구축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NEWS

구미병원

성명순 소아청소년과 교수, 삼아 학술 연구비 수상

구미병원 성명순 교수(소아·청소년)는 4월 7일, 그랜드워커힐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3 대한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아 학술 연구비상을 수상했다. 2023년 삼아 학술 연구비는 학문연구 지원과 학회 발전을 도모하고 기초의학을 임상에 접목한 이행적 연구 분야에 선정된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600만원의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성명순 교수는 연구자의 우수성 및 역량과 의지를 인정받아 삼아 학술 연구비상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연구과제는 ‘한국 소아 알레르기비염 환자에서 반려동물털에 대한 감작률과 증상 발생 사이의 연관성’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이 소아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한편, 성명순 교수는 ▲환경 유해물질이 학동기 소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교육의 필요성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글로벌 전향적 관찰 중단 연구 등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분야의 많은 논문 등으로 독보적 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전동수 산부인과 교수, 칠곡소방서 구급대원 특별교육 실시

구미병원 전동수 교수(산부인과)는 4월 18일 칠곡소방서 특별 교육 강사로 초빙돼 ‘새 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 분만 및 산과 응급’ 주제로 칠곡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분만 ▲산과질환에 대한 교육과 실습 ▲고위험 산모의 장거리 이송 등 응급분만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역량을 갖춘 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4월 19일과 25일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와 산과응급 사례가 감소하고 원거리 출산과 진료로 인해 임산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동수 교수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구급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칠곡소방서, 성주소방서, 경산소방서, 청도소방서 등에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분만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보건센터, 지구의 날 행사 참여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윤성용)는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제53회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이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는 주제로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우리 집 만들기(팝업북, 스티커북) ▲생활화학제품 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홍보 ▲생활화학제품 함유물질 정보집 및 응급대처 가이드북 배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의 종류와 특성별로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윤성용 센터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품과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저감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환경보건 측면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동행사와 환경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실 간호부장,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선출

구미병원 김영실 간호부장이 경상북도 간호사회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영실 간호부장은 4월 27일 호텔 인터불고 즐거운 홀에서 열린 경북간호사회 정기총회 및 임원 선거를 통해 참여 대의원 100% 전원 찬성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간이다. 김영실 신임회장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활동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전문간호인 양성기여 등에 힘써왔으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22년) 등을 수상했다. 김영실 신임회장은 “초고령 인원이 많이 분포된 경북지역에 안전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환자와 지역민을 위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간호사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영실 간호부장은 1985년 경북보건대학교를 졸업하고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입사해 간호인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40여 년간 간호사로 활동해 왔으며, 2019년 간호 부장으로 임명 후 임상 경험을 토대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를 향해 위대한 병원으로 도약하는 ‘순천향’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며 세상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전국 4개(서울·부천·천안·구미) 권역에서 대한민국을 진료합니다.

천안에 최첨단 의료시스템 갖춘 1천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합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순천향대병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 어록 중에서